

## 연행사가 체험한 조선과 청의 세 가지 경계\*

정재훈\*\*

###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鴨綠江
- III. 柵門
- IV. 山海關
- 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에서 청으로 연행을 떠났던 조선후기에는 연행을 통해 많은 문물의 교류가 일어났다. 대체로 선진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청으로의 연행에는 당대 최고의 관료이자 지식인들이 三使에 참여하였고, 또 이들을 따라 자제군관 혹은 타각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과 다른 조건에서 매우 불편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행이었지만, 이 연행은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다. 본고에서는 연행사들의 경험을 수록한 연행록을 중심적인 소재로 하여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과 우리나라를 구분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청나라로 갔던 연행길은 대개 비슷한 행로로 이어졌다. 압록강을 건너서 책문에 들어간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였다. 이러한 연행길을 가면서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선과 청 사이에 있었던 경계를

\* 본 논문은 제12차 중국한국학 국제학술회의(2011.10.13.~17, 중국 장춘 길림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하나씩 건너게 되었다.

조선과 청 사이에 놓였던 국경은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조선과 청이 나뉘어지는 것은 굳이 정계비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인정되는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곧 청의 실체와 전면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인 국경의 역할, 국경검문소의 역할은 책문에서 수행하였으며, 전통적인 화이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산해관이 또 하나의 결절점이었다.

이들 압록강, 책문, 산해관은 각각 자연 지리적인 경계, 실질적인 국경의 경계, 문화적인 경계로 연행사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들 지점들을 통과한 연행사들에 대해 18세기를 중심으로 전후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며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가는 소회는 시기에 따른 변화의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 압록강을 건너는 감상에 젖어 때로 술을 마심으로써 그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다만 18세기의 홍대용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는 일이 여행길의 끝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박지원의 경우는 강으로 상징되는 자연물과 이별이라는 감상,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道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성찰하고, 그 관계를 뛰어넘어 사고하려는 철학적인 태도까지 보이기도 한다.

책문의 경우에는 국경의 검문소로서 실질적인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 책문에서 비로소 청나라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압록강을 넘어 책문까지는 청의 발상지로 인한 봉금지대로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책문의 통과 절차는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사항이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처음 접하게 된 책문 안 거리와 상점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특히 18세기의 책문은 책문후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상들의 활약으로 조선과 청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번성함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비록 연행사들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책문을 지나며 변경의 경계는 더욱 확대되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華夷觀에서 中華와 夷狄가 갈렸던 분기에 해당하는 산해관을 지나며, 연행사들은 다시 한번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18세기 이전에는 산해관은 의식주에서 중화와 이적이라는 개념으로써 모든 문화를 가르는 경계가 될 정도로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18세기 이후에도 그런 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관방의 기능, 방어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산해관에서 연행사들에게 이제 화이관은 무의미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문화적 경계로서의 산해관은 사라지고 청의 현실을 확인하고, 將帥의 기상과 보편적인 삶의 어려움을 논하는 장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은 여러 경계를 지나면서 18세기의 연행사들은 새로운 세계를 한발씩 받아들이는 여정을 지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燕行使, 鴨綠江, 柵門, 山海關

## I. 머리말

조선에서 청으로 연행을 떠났던 조선후기에는 연행을 통해 많은 문물의 교류가 일어났다. 대체로 선진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청으로의 연행에는 당대 최고의 관료이자 지식인들이 三使에 참여하였고, 또 이들을 따라 자제군관 혹은 타각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과 다른 조건에서 매우 불편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행이었지만, 이 연행은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다. 본고에서는 연행사들의 경험을 수록한 연행록을 중심적인 소재로 하여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과 우리나라를 구분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는 조선후기에도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국경에 해당하는 국경선이 분명하지 않았고, 또 연행사가 거쳐갔던 지역이 청나라의 발상지라는 특수한 조건에 놓이게 되면서 국경

의식 혹은 중화와 조선을 구분하는 의식은 어느 특정한 지역만을 경계로 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과 청을 구분하는 경계의식은 자연적인 지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타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국경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곳인 책문을 기준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화이관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구분에 기준이 되었던 곳은 산해관이나 요동 별관이 될 수도 있겠다.

연행에 참여한 사신들은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청의 수도인 북경을 향하면서 점차 조선과는 다른 중화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갔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경계에서 국가의 경계, 나아가 문화적·심리적 경계를 자신들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진하였던 것이다.

## II. 鴨綠江

조선후기에 조선과 청의 경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sup> 사실 경계와 영토를 둘러싼 개념은 주로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에 보다 명확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과 주권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 시대에도 근대 이후와 꼭 같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경계가 있었던 점은 공통의 사실이다.

1) 조선과 청에 대한 국경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주목한 경계는 이러한 국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계를 말한다. 최근 근대와 관련하여 국가만들기, 변경, 정체성 등에 대한 연구가 경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경계'라는 용어는 이러한 연구를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근대 혹은 근대국가 만들기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일단은 연행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청과 조선의 구분의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경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는 행위, 즉 犯越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sup>2)</sup> 범월이 나타나게 된 시기는 청조가 성립된 이후인 17세기부터이며, 주로 採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였다. 범월이 많아질수록 양국의 사이에서는 한층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교 현안으로 확대되어 양국의 국경을 정립하는 요인이 되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경계, 곧 국경은 1712년 白頭山定界碑 설립 이후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土門'이 되는 국경선이 확정되어 서쪽으로 압록강이 국경이 되는 것은 분명하였다.<sup>3)</sup>

그렇다면 연행, 혹은 조선전기의 朝天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압록강을 조선과 중국의 실질적인 경계로 인식하였는지 살펴보자. 우선 압록강은 국경도시인 義州를 감싸고 도는 강으로서 그 이름인 鴨綠은 '오리의 머리처럼 푸르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馬訾江, 清河江, 龍灣江이라고도 하였다. 압록강에 대해서는 비록 그 길이가 같지는 않지만 중국의 黃河나 長江에 비길 만큼 큰 강으로 인식하였으며, 주자의 언급도 인용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강으로 이해하였다.<sup>4)</sup>

압록강은 백두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함경도와 평안도의 閭延·茂昌

2) 李花子, 「17·18세기 越境문제를 둘러싼 韓淸交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 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26, 명청사학회, 2006.

3) 정계비를 세운 이후 압록강을 국경으로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정약용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茶山詩文集』 제 15권, 〈疆界考敘〉 “두만강과 압록강이 모두 長白山에서 發源하고, 장백산의 南脈이 뻗어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봉우리가 연하고 산마루가 겹겹이 솟아 경계가 분명치 않으므로 康熙 만년에 烏喇總管 穆克登이 명을 받들어 定界碑를 세우니, 드디어 兩河의 경계가 분명해졌다.”

4) 李裕元, 『林下筆記』 권13, 文獻指掌編, ‘鴨綠江’

·江界 등을 거쳐 의주 북쪽에서 강줄기가 넓어지면서 몇 갈래로 나뉘고 합치기를 반복하였다. 이는 강에 위치한 크고 작은 섬 때문이었다. 그래서 압록강은 의주 북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강줄기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압록강이나 中江, 三江, 少西江 등으로도 불리운다.<sup>5)</sup>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압록강은 의주 쪽에 붙어있는 본줄기이며, 다음으로 서쪽으로 있는 강줄기가 소서강 또는 가운데 있다고 하여 중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중강을 건너면 있는 또 다른 강줄기가 삼강이었고, 鎭江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靄河, 愛刺河, 愛哈河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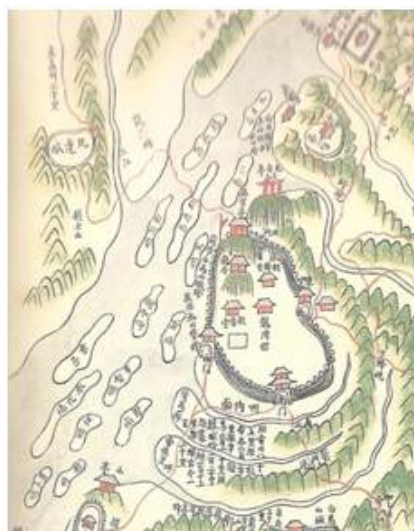
여름과 가을에는 강물이 불어서 세 강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 흐르기도 하였다. 반대로 강수량이 넘치지 않을 때에는 강 양안의 사이에 있는 20여 개의 섬들 사이로 강물이 흘러갔다. 대체로 이들 섬 가운데 중강을 건너기 이전에 있는 것은 조선의 관할 지역이었고, 조선의 파수처가 설치되어 상주하였던 곳이다.<sup>6)</sup>

5) 압록강이 세 갈래로 갈리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燕輓直持』에서는 少西江, 中江, 三江으로 불렸으며(권1, 출강록 중강기), 『輿地圖書』에서는 압록강, 西江, 少西江이라고 하였다.(평안도, 의주부 山川).

6) 압록상 상에 위치한 섬에 대해서는 이철성, 「조선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3호, 2009, 279쪽 <표 1> 압록강 중 도서 일람표 참조.



〈그림 1〉 〈輿地圖書(18세기 중반)〉의 압록강 그림



〈그림 2〉 〈海東地圖(18세기 중반)〉의 압록강 그림



〈그림 3〉 〈關西清北全圖〉의 압록강 그림

압록강을 건넌 길은 시기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의주 북쪽으로 8리 떨어진 곳에 있던 九龍淵 나루가 강을 건너는 출발점이였다.<sup>7)</sup> 구룡연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우선 중강까지 건넜다. 대체로 중강을 지나면 국경을 넘는다고 보았다.<sup>8)</sup> 중강을 건너면 나

7) 구룡연은 의주 북쪽의 압록강을 바라보는 統軍亭 아래쪽에 있던 九龍亭 근처에 있었다. 압록강 물이 여기에서 가장 깊다고 하며,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 金昌業은 '小西江을 지나 中江에 이르니, 이 중강을 지나면 저쪽 땅이다.(行過小西江, 到中江, 過江則彼地也.)'라고 인식하였다.(김창업, 『老稼齋燕行日記』 권1, 임진 11월 26일(을사) 기사 참조) 이때 소서강은 강이지만 중강은 강이 아니라 섬인 黔同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섬의 북쪽을 거쳤다고 한다. 중강이 分水嶺에서 발원한다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 李押, 『燕行記事』上, 경유년(1777, 정조 1) 12월 27일 路程記, “鴨綠江五里, 源出長白山, 小西江一里, 卽乾川, 中江一里, 源出分水嶺, 方坡浦一里, 卽乾川, 三江二里. 卽小川.”



타나는 섬에는 사람 키보다 큰 갈대밭이거나 잡석이 있어서 걸기에 불편하였다.<sup>9)</sup> 이곳을 지나 삼강을 건너면 드디어 구련성 아래쪽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연행사인 동지사는 대체로 겨울철에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여름철과는 달리 배를 타지 않고 얼음이 언 강 위를 썰매를 타거나 말을 타고 지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면서 어떤 소회를 펼쳤을까? 우선 강을 건너기 전에 의주에서 사신 일행은 일반적으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준비를 하게 된다. 수행원이 모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으며, 봉물들도 확인하고 포장을 해야 했다. 이 밖에 문서를 준비하는 와중에 더러는 의주부에서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나루터에 가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이때 연행사들은 이별의 술을 마시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면 완전히 이별한다는 의식은 조선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徐居正(1420~1488)이 明使 祁順 등의 원접사가 되어 唱酬했던 시구절 가운데 ‘내일 아침 압록강에서 한번 서로 헤어지면 / 아스라이 하늘 저쪽 연산 땅을 향해 가겠지’<sup>10)</sup>라고 한 것에서 그런 의식은 확인할 수 있다. 南九萬(1629~1711)은 사행을 가며 의주부윤을 배 안에서 전별하기도 하였다.<sup>11)</sup>

압록강을 건너는 경우에 더러는 江岸에서 시작한 술자리가 배 안에 까지 이어지며 술잔을 종횡으로 주고받아서 만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16

9) 李押, 『燕行記事』(上) 11월 27일, “過小西江, 至中江. 江水未合, 週廻而行.”

10) 『四佳集』 「四佳詩集, 補遺2. “瞥眼光陰江水流, 人生聚散如浮漚. 明朝鴨水一相別, 渺渺燕山天盡頭.”

11) 『藥泉集』 권2 〈鴨江舟中別灣尹〉 “龍灣大尹送燕行, 江上樓船簫鼓鳴. 百戰封疆餘感慨, 三秋雲日正虛明. 舊名尙識馬營水, 往迹誰知安市城. 萬里路長王事急, 玉壺清酒不須傾.”

세기 후반의 許篈(1551~1588)이 이런 경우이다.

술자리는 무르익었고, 자리를 배로 옮긴 다음에는 종횡으로 수없이 술잔(觴籌)을 주고 받았다. 언덕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이미 만취하여 넘어지려고 하여 부축해서 西江에 이르렀다. 上使와 함께 건너서 狄江에 도착하여 나는 피곤하여 누웠고, 상사와 趙憲은 먼저 갔다. 달이 뜬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일어났다. 거처온 곳에는 婆沙堡의 옛터 등의 지역이 있었지만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서울 사람들과 작별할 때가 되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대궐을 그리워하였던 탓에 마음이 어지러워 유선과 함께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sup>12)</sup>

위의 경우에는 국경을 지나는 차분한 감상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경우 국경을 통과하는 심정을 담담하게 적은 경우도 있었다. 麟坪大君(1622~1658)의 강 건너기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떠난 사람과 말이 거의 절반 정도 강을 건넌 다음에야 채색을 한 큰 배에 올라탔다. 의주부윤도 역시 배 안에까지 와서 얘기하다가 작별했다.  
(중략)

빨리 배를 물게 하여 강 북쪽에 정박하고는 강 언덕 위의 풀을 베고 床에 기대어서 약간 쉬고 있으니 驛馬들이 모두 건너왔다. 비로소 길을 떠나서 中江에 도착하니, 江南差員인 乾川權管 金壽昌이 宴廳 밑에 배를 대고 있었다. 이 연정은 곧 北使가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강물이 빠르고 바람이 어지러워서 간신히 나룻배를 이끌고 정박했는데, 江北差員인 玉江萬戶 咸卿祥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淸國 국경이 시작되는데, 무오년 이후로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人家가 완전히 없었

12) 『荷谷先生朝天記』 권上, 6월 16일(기미), “酒闌, 移席于舟次, 觴籌縱橫無算. 暨到于岸, 余已醉倒, 扶至西江. 與使並渡, 抵狄江, 余困臥, 使與汝式先去. 月上, 余始起. 所經有婆娑堡舊址等地, 而俱不能記. 是日余欲不飲, 而及與京洛之人相別也, 思親戀關, 中懷作惡, 遂與由善引酒至醉焉.”

며 쑥대만 눈에 가득할 뿐, 겨우 길 하나만이 있었다.<sup>13)</sup>

인평대군도 중강에서 청의 국경이 시작됨을 간단하게 언급할 뿐 내심에 있는 감상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며 청의 국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그네의 감정으로 이를 읊는 것은 18세기 후반 徐有聞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

中江에 이르니 또 小西江이라 일컫더라. 여기를 지나면 저들의 땅이라. 길 옆에 갈수풀이 얽혀 겨우 수레가 지날 만하니 나그네 회포 극히 슬프더라. 하물며 깊은 겨울에 朔風이 처량하여 석양이 산에 내리는 때를 당하여 머리를 돌려 동을 바라보매 눈물을 아니 흘릴 이 없으며, 보내는 사람도 강가에서 바라보면 갈수풀 사이에 푸른 일산이 나부끼다가 잠깐 사이에 간 곳이 없어지니, 아득히 냇이 빠지지 않을 이 없다 하더라.<sup>14)</sup>

다만 18세기 중반에 연행에 참여하였던 洪大容과 朴趾源의 경우는 압록강을 건너며, 일반적인 감상과는 다른 형태의 경계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홍대용은,

압록강이 이 앞에 이르러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는 三江이라 이르는 곳이다. 이때 삼강이 다 얼어붙어 그 위에 눈이 쌓였고, 말을 타고 지나니 강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강을 지나는데 좁은 길이 겨우 수레를 통할 만하고, 좌우의 갈대 숲이 길을 끼고 우거져 길이 극히 빼어나게 훌륭하였

13) 『燕途紀行(中)』 명신(1656) 8월 22일(정유), “先發人馬, 渡江幾半, 酒登畫舸. 灣尹亦造船中, 敘話而別. (중략) 催舸泊江北, 芟草岸上, 據床少憩, 驛騎畢渡. 始酒啓行, 到中江, 江南差員乾川權管金壽昌磯船于宴廳下. 廳是北使設宴處, 水急風亂, 艱制津舸以泊. 江北差員玉江萬戶咸卿祥待候. 自此始清國界, 戊午後永作荒蕪, 人煙斷絕, 蓬蒿滿目, 只有一線路矣.”

14) 徐有聞, 『戊午燕行錄』 제 1권, 무오년(1798) 11월 19일(『국역연행록선집』Ⅶ(민족문화추진회), 32쪽)

다. 하물며 깊은 겨울의 석양이 산에 내리는 때를 당하여 親庭을 떠나 고국을 버리고 만리 연사(燕使:연경으로 향하는 사신)로 향하는 마음이 어찌 곳지 않을 것인가마는, 수십 년 평생의 願이 하루아침의 꿈같이 이루어져 한낱 書生으로 戎服을 입고 말을 달려 이 땅에 이르렀으니, 상쾌한 의사와 慷慨한 기운으로 말 위에서 팔을 뻗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드디어 말 위에서 한 곡조 미친 노래를 지어 읊었다.<sup>15)</sup>

라고 하면서 이전의 연행사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길까지 훌륭한 길로 볼 정도로 국경을 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아가 중국으로 향하는 길이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강 건너기를 통한 경계를 뛰어넘는 일은 고통의 길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장쾌한 길이었다.

박지원은 압록강에서의 경계넘기를 나그네의 감상 또는 새로운 세계로의 열망이나 지역적 경계만이 아니라 만물 사이에 놓인 철학적인 경계로까지 끌어 올려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내가 홍명복(洪命福, 原註:수역(首譯))군에게,  
 “자네, 도를 잘 아는가.”  
 하니, 홍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라고, 공손히 반문한다. 나는 또,  
 “도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닐세. 바로 저 강 언덕에 있는 것이네.”  
 라고 했다. 홍은,  
 “이른바,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sup>16)</sup>는 말을 지적한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15) 홍대용 저·김태준 역,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38~39쪽 인용.

16) 『詩經』「大雅」의 ‘皇矣’편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런 말이 아닐세. 이 강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서 응당 언덕이 아니면 곧 물일 것일세. 무릇 세상 사람의 倫理와 만물의 法則이 마치 이 물이 언덕과 만나는 곳에 있는 것과 같네. 도라는 것이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곧 이 물과 언덕이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이란 말일세.”

라고 답했다. 흥은 또,

“외람히 다시 여쭙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또 답했다.

“옛 글에 ‘人心은 오직 위태하고 道心은 매우 작을 뿐’이라고 하였는데, 저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幾何學에서 한 획의 線으로 설명하였지만 그 세밀한 부분을 다 설명하지 못하여서 곧 빛이 있고 없는 사이라고만 말하였네. 곧 이에 대해 불교에서는 다만 불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말로 설명하였지. 그러므로 그 경계에 잘 대처하는 것은 오직 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을 테니 옛날 鄭나라의 子產 같은 이라면...”

이렇게 수작하는 사이에 배는 벌써 언덕에 닿았다.<sup>17)</sup>

박지원이 도가 다른 곳이 아니라 물과 언덕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한 지적은 원칙이 마치 물과 언덕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일 수 있다. 경계 자체를 넘어서서 경계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성찰하고 그 관계를 뛰어넘어 사고하려는 박지원의 태도는 종래의 ‘강’으로 상징되는 자연물과 이별이라는 감상, 국가적인 경계를 동시에 넘어서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19세기에도 이곳을 지나던 연행사들은 압록강에 대해 승경에 대한 감탄,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洪奭周(1774~1842)는 압록강을 건너며 쓴 記文에서 關西의 경치가 大同江과 淸川江을 좋다고 하지만, 이들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산세는 이에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압록강이야말로 강과 산의 아름다움으로 논할 때 비교될 만한 것이 없다

17) 『熱河日記』『渡江錄』, 後三庚子, 6월 24일 신미

고 할 정도로 극찬하였다.<sup>18)</sup> 1828년에 燕行에 참여하였던 朴思浩 역시 압록강을 건너는 심정에 대해 토로하는데, 오히려 여러 날 의주에 머물러서 지루하던 차에 상쾌하였던 심정과 이별의 아쉬움을 말하기도 하였다.<sup>19)</sup>

위와 같이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연행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압록강은 분명 자연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조선을 떠나는 경계로 인식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압록강이 국경으로 이해되었고, 특히 강 가운데에 있던 중강을 넘어서는 것은 청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때로 이별의 정회를 달래는 술자리로 인해 술에 취한 채 강을 건너기도 하였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며 어느새 국경을 건너는 지도 모르게 건너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연적, 지리적 경계로서의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곧바로 청나라에 들어온 것을 온전하게 느끼게 하지는 못하였다. 19세기에 압록강을 건넌 이후 청나라의 수자리 사는 甲軍의 모습을 기록한 경우<sup>20)</sup>도 있지만 柵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청나라에 들어온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압록강을 건너 처음 노숙하는 곳인 구련성이나 책문 근처의 봉황산 등지의 모습은 강을 건너기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조선의 산천과 비슷하였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18) 『淵泉先生文集』 권19 「渡鴨綠江記」, “關西之勝, 稱大同清川. 然大同以佳麗勝耳. 山又不足以稱, 水若曠然以迥, 窈然以幽, 江山映發, 衆美交會, 未有如鴨綠者, 卽無論清川也. 鴨綠在中外之交, 東西千餘里, 實巨防也.”

19) 『心田稿一』 『燕薊紀程』, 戊子(1828) 11월 25일

20) 『往還日記』, 戊子(1828) 5월 초9일

### Ⅲ. 柵門

압록강을 지나서 실질적인 국경에 해당하는 책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지나며 약 두 번의 밤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역은 封禁지대로서 청나라에서 출입을 금지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따라서 露宿을 할 수 밖에 없었다.<sup>21)</sup>

압록강을 건넌 연행사 일행은 현재 중국의 丹東市에 있는 虎山長城 아래쪽에 도착하여 첫 번째 숙박지인 九連城으로 향하였다. 이 구련성을 거쳐 鳳凰城 근처의 柵門에 이르는 길은 사람이 살지 않기도 했고, 또 동지사가 지나는 겨울에는 황량하기도 하여서 연행사들에게는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연원직지』에는 ‘압록강을 건넌 이후로는 길의 좌우로 갈대가 숲을 이루었다. 비록 잎이 마르고 줄기도 야위었지만 그럼에도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봄이나 여름에 지나는 別使의 경우 사행 길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sup>22)</sup>고 적고 있다.

아무튼 이 지역은 한편으로는 연행에 나선 이들에게 걷기에 불편한 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압록강을 건너기 이전의 고국의 산천과 그 다지 다름이 없어 동시에 낯설음이 덜한 길이기도 하였다. 구련성의 경우 박지원은 ‘높은 언덕에 혼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산은 곱고 물은 맑은 데 바둑판처럼 푹 트이고,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그 속에 큰 마을들이 멀리 자리 잡은 듯 보이고, 개와 닭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며 땅이 기름져

21) 1574년에 聖節使로 이곳을 통과하였던 許篈(1551~1588)의 경우에는 명나라 때 이므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 구련성 근처의 인가에서 유숙하였다. 『朝天記』上, 갑술(1574) 6월 16일(기미)

22) 『燕輶直指』 권1, 『出疆錄』 임진(1832) 11월 21일

개간하기에도 알맞은 것 같다.’<sup>23)</sup>라고 하였고, 19세기에 김경선은 ‘산수가 아름답고 局面이 평온한데, 왕왕 산이 둘러서고 물이 감도는 곳에 樹木이 은은하게 가리워 마을이 있을 듯하며, 땅이 기름지고 편편하며 개간한 자취가 오히려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 큰 鎭이나 府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공한지가 되어버렸으니 애석한 일이다’<sup>24)</sup>고 하여 산수의 아름다움과 토지의 비옥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두 번째 숙박지인 湯站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金石山을 지나면서는 그 크기를 朝鮮의 冠岳山에 비기면서 더 빼어나다고 하기도 하였고,<sup>25)</sup> 평양과 비슷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sup>26)</sup> 김경선은 구련성에서 책문까지의 풍토에 대해 총평을 하면서 ‘산의 기운이 밝고 아름다워서 마치 우리나라의 東郊, 西郊와 같다’고 할 정도였다.<sup>27)</sup> 또한 봉황산 역시 조선의 三角山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인식하였다.<sup>28)</sup>

산천에 대한 이와 같은 공감은 역사적, 문화적인 동질감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sup>29)</sup> 구련성을 사실 여부와는 달리 고구려의 國內城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고, 봉황성과 봉황책문을 고구려의 국내성 또는 安市城으로 회상하기도 하였다.<sup>30)</sup> 그러나 南九萬(1629~1711)과 같은 연

23) 『熱河日記』「渡江錄, 後三庚子, 6월 24일 신미

24) 『燕輶直指』 권1, 「出疆錄, 〈九連城記〉

25) 『靑莊館全書』 권66, 무술(1778) 4월 13일: 『戊午燕行錄』 권1, 무오(1798) 11월 20일

26) 『薊山紀程』 권5, 「山川, 참조. 金石山에 대해서는 松鵬山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압록강을 건넌 이후에 보통의 경우 구련성에서 1박, 湯站에서 1박을 하고, 책문에 들게 된다.

27) 『燕輶直指』 권6, 「天地山川,

28) 『燕行錄』(崔德中), 「日記, 임진(1712), 11월 27일

29)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철성, 2009 위 논문 286~291쪽에서 지적하였다.

30)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탐색, 鳳凰山城 -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 『정신문화연구』 29-2, 2006, IV장 참조.



행사의 경우에는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등 이견을 보기도 하였다.<sup>31)</sup>

柵門은 연행사들이 청의 국경을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대했던 곳이다. 책문은 이름 그대로, 목책에 문을 낸 것으로 이 목책을 청에서는 柳條邊이라고 불렀다. 유조변은 ‘버드나무를 심어 邊으로 삼은 것으로, 높은 것은 3~4척이고, 낮은 것은 1~2자였다. 중국의 대나무 울타리와 같았지만 그 바깥에 해자 [壕] 를 팠으며, 사람들이 유조변이라고 불렀고, 혹은 條子邊이라고도 하였다.’<sup>32)</sup>고 알려졌다. 이 유조변은 광역의 요동을 삼분하여 여진의 주거지인 邊裏, 거란의 주거지인 邊外, 漢인이 다수를 점하는 邊內로 공간을 나누어주는 의미가 있었다.<sup>33)</sup>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목책은 연행사들의 눈에는 매우 상세한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연행사들은 목책에 대해 대략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 김경선은 『연원직지』에서

책이란 한 길 반이나 되는 나무를 늘어세워서 그 사이로는 사람이나 말이 드나들 수 없고, 나무를 가로 대어 그 가운데를 엮어서 가로막아 경계를 나눈 것이다. 《河槎記》에는, “북쪽으로는 塔刺 지방에서 남쪽으로 海門에 이르기까지 2천여 리 사이에 72개 군데나 목책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목책이 만리장성 북쪽 변방으로부터 口外를 따라 달단(韃靼, 타타르)을 경계로 하여, 동남쪽으로는 黑河와 白山을 둘러서 봉황성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이가 또한 거의 만 리나

31) 『약천집』 권2, 〈鳳凰山竝序〉

32) 楊賓, 『柳邊紀略』;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568쪽 재인용

33) 특히 남북으로 이어진 유조변은 중국인의 東漸을 막아서 여진이 일어난 땅 [興之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청나라 초기에 만주에서 入關함에 따라 백성을 불러 모으려 했던 招民 정책에 따른 지나친 유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이 강희제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유조변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김한규, 2004 앞의 책, 567~578쪽 참조.

된다.”라고 하니, 두 가지 설명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다. 문은 그다지 높거나 크지 않은데 풀을 엮어 덮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버드나무를 꺾어 남새밭 울타리를 세웠다.’는 것과 같아 자못 우스웠다.<sup>34)</sup>

라고 하여 목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계산기정』에서도 ‘이 방책을 세운 것은 북쪽으로는 塔刺땅에서부터 남쪽으로는 海門에 이르는 2000여 리에 70개 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의 하나다.’<sup>35)</sup>라고 이해하였다.

책문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나무를 가지고 防柵을 만든 것이고, 문 자체는 草屋으로 지어져 풀을 덮었으며 문은 판자로 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언이다. 이 책문은 방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경계를 위해 세운 것으로 이해되었고, 실제로 책문에 대해서는 실망하였던 기록도 있다. 徐慶淳(1804~?)은 “내가 평소에, 책문이란 것이 전쟁할 때의 책문처럼 성이나 궁궐의 層門 같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와서 본 것은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의 안목에도 차지 않으니, 참으로 보잘 것 없다.”<sup>36)</sup>고 하여 책문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18세기의 연행사들이 본 책문은 원래의 위치에서 20리 밖으로 옮겨져 세워진 것이었다. 옮기기 전에는 압록강과의 거리가 130여 리였다가 20리 밖으로 옮겨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이는 봉황성에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농토로 사용하거나 목축에 필요한 땅이 많아진 것이 이유라고 하였다.<sup>37)</sup>

책문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였다. 사신 일행이

34) 『燕轅直指』 권1, 「出疆錄, 임진(1832) 11월 22일 〈柵門記〉

35) 『心田稿一』 「燕薊紀程, 戊子(1828) 11월 26일

36) 『夢經堂日史』 제1편 「馬營勅征紀, 을묘(1855) 10월 28일

37) 『庚子燕行雜識』 上 「雜識, 위 기록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은 많은 연행록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무오연행록』에서는 물린 거리를 강희제 때 10여 리로 설명하기도 했다.

도착하였다고 곧바로 책문을 여는 것은 아니었다. 책문의 관리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鳳凰城將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봉황성장은 책문에 항상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고 봉황성에 있다가 사신 일행이 도착하였을 때 연락을 받고 와서 관련 일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사신 일행은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책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루 전쯤 청역(淸譯)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 사신이 도착할 것을 통지하기도 하였다.<sup>38)</sup> 하지만 봉황성장은 즉시 오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사나흘씩 사신 일행을 책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9)</sup>

봉황성장이 책문에 오면 봉성성장과 主客司,<sup>40)</sup> 사행을 호송하는 伏兵將·迎送官인 衙譯과 여러 章京 및 博氏·甫十古·甲軍 등이 책문 밖으로 나온다.<sup>41)</sup> 이에 세 사신은 문밖에서 相見禮를 서로 한 다음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단자를 전했다. 이어 上通事를 시켜서 각 사람에게 禮單을 주었다. 그리고 주객사 이하가 문의 좌우에 벌여 앉아서, 갑군을 시켜 보고 단자에 따라 사람과 말의 숫자를 계산하여 문에 들어가게 하였다. 문으로 들어가면 봉성 장군 및 책문 어사가 문안에 있는 收稅廳에 나와 앉

38) 『燕行錄』(崔德中) 〈入柵式〉

39) 『燕途紀行(中)』 병신(1656) 11월 28일 임신

40) 보통 賓客, 또는 使臣을 접대하는 일을 맡은 관청을 말한다. 여기서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41) 『燕轅直指』 권1, 「出疆錄, 임진(1832) 11월 22일 〈衙譯麻貝護行記〉에 따르면 아역은 通官이고, 麻貝는 迎送官으로서 章京이라고도 하는데, 봉성 旗下의 兵職이다. 아역과 마패 각각 1인이 伏兵將 1인, 보고 2인, 갑군 18명을 거느리고 우리 사신의 행차를 호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북병장·보고·甲軍이 책문에서 遼東, 요동에서 瀋陽, 심양에서 廣寧, 광녕에서 山海關, 산해관에서 북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례로 교대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을 근거로 보면 甫十古는 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문에 이르기까지는 호위는 의주에서 과건된 군사들이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여기에 돌아갔다.

아 있어 이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sup>42)</sup>

18세기 초반에 김창업은 책문을 통과하면서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랐다. 이때에는 아직 책문이 그다지 변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창업(1712)이 본 책문에는 문 안의 '城將의 처소, 酒食店, 민가를 합쳐서 모두 10여 호'라고 하였고, 모두 풀로 덮여 있어서 변화한 느낌은 없었다. 다만 曆行들이 사 놓은 씨를 뺀 면화만이 언덕처럼 쌓여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이곳을 지난 이의현(1720)의 기록에 따르면 책문 안에는 30~40호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18세기 중반에 이곳을 지난 홍대용 일행의 경우에도 책문에 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연행사 일행이 책문 밖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황성장은 날이 저물도록 오지 않아서 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자칫하면 책문을 앞에 두고도 노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홍대용의 숙부이자 서장관이었던 洪櫓은 사마군인 領將을 잡아들여 곤장을 치는 시위를 하여 겨우 들어가게 되었다.<sup>43)</sup>

홍대용이 본 책문은 그다지 인상이 좋은 곳이 아니었다. 책문이 변방의 별 볼 일 없는 지방인데 조선의 사행에 의지하여 이들이 지날 때 비싼 값으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해타산에 밝으며 교활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책문의 상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으며, 그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물건들이 조잡하고 더러워서 볼 만한 것이 없다고도 하였다. 다만 중국으로 와서 처음 보는 것이기에 꽤 인상적이었다고 기록하였다.<sup>44)</sup>

42) 책문을 출입하는 절차는 『燕行錄』(崔德中)의 〈入柵式〉 기록과 『燕轅直指』의 〈柵門記〉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43) 홍대용 지음, 김태준·박성순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을병연행록)』, 돌베개, 2001, 43~44쪽

44) 『湛軒書外集』 권8, 『燕記』 〈沿路記略〉.

18세기 초·중반에 책문을 지낸 이들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책문이 상업적으로 번성하였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 책문의 경우 조선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번성은 가능하지가 않을 정도로 조선 사신들의 행차에 의존하는 정도가 컸다. 특히 18세기 초인 1707년(숙종 33)에는 책문에서의 後市가 공인되어 종래 역관이나 官府와 결탁함으로써 가능했던 무역이나 비합법적 밀무역에서 벗어나 私商들이 무역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때였다.

책문에서의 무역은 사행원역이 행한 무역과 사상의 책문무역 및 團練使가 돌아오는 길에 이루어진 심양·책문무역 등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책문)후시가 열리는 횡수가 1년에 4~5번에 이르렀는데, 매번 사행이 응당 가지고 가는 팔포를 합해 계산하면 1년에 압록강을 건너는 은화가 거의 50~60만 냥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였다.<sup>45)</sup> 따라서 책문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발달하게 된 상당한 이유는 조선에서 제공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책문에 대해서는 그 변화함을 높게 평가한 경우도 생겨났는데, 19세기의 徐慶淳은 “책문을 보면 서울 남산의 가난한 생원들의 100냥짜리 草家의 문과 비슷하더니, 책문 안의 시전은 우리나라 雲鍾街의 六矣廬에 비교하더라도 10배 100배 이상이 되므로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실속은 부자라고 할 만하다.”<sup>46)</sup>라고 하여 책문이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물론 19세기 중반이므로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기는 하나 책문의 상업이나 무역의 규모가 만만치 않았음을 증언하는 기록이다.

45) 『통문관지』 권3, 사대 개시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제 2장 참고

46) 『夢經堂日史』 1편, 『馬營軼征紀』, 을묘(1855) 10월 28일

18세기 후반의 박지원 역시 책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박지원은 책문에 들어가는 장면을 전후의 어느 연행 기록보다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박지원은 책문 밖에 도착하여 책문 안에서 기다리던 청나라 사람들과 역관, 마두들 사이의 대화나 사행에 쓰였던 팔포은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렇게 청나라 사람들이 환대하며 적극적으로 안부를 묻는 등 상세한 묘사를 통해 당시 책문에서의 무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은,

다시 책문 밖에서 책문 안을 바라보니, 民家들은 五櫟<sup>47)</sup>의 높은 집들로 서 떠 이영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등마루가 흰칠하고 대문과 창문이 가지런하며 길거리가 곧게 뻗어서 양쪽 길이 마치 먹줄을 친 것 같았다. 담장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이 탄 수레와 화물을 실은 수레들이 길에 즐비하였고, 진열하여 놓은 그릇들은 모두 그림이 그려진 자기이다. 그 만듬새와 갖춤을 보면 도무지 시골터라고는 전혀 없었다. 지난번에 나의 벗인 洪德保<sup>48)</sup>가,

“그 규모는 크지만, 그 心法은 세밀하다.”<sup>49)</sup>

47) 오량은 대들보가 다섯 줄로 된 비교적 큰 집을 말한다.

48) 洪大容(1731~1783)을 가리킨다. 홍대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과학사상가이다. 본관은 南陽. 자는 德保, 호는 弘之. 湛軒이라는 堂號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특히, 地轉說과 宇宙無限論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관을 근거로 華夷의 구분을 부정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1765년 초의 北京 방문을 계기로 서양 과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湛軒書』는 약간의 시·서를 제외하면 거의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10여 년 사이에 쓴 것이다. 그의 사상적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북경 방문은 「燕記」 속에 상세히 남아 있다. 그의 「연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그 뒤 『열하일기』에 영향을 주었다.

49) 박지원은 홍대용이 책문에 대해 ‘規模는 크되 心法은 세밀하다’고 칭고하였다고 『열하일기』에 기록하였지만 홍대용이 〈연로기략〉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太子河 주변에 쌓인 목재의 모양이나 永平府 서쪽의 들에 심은 다펀나무와 뽕나무의 모양을

라고 일찍이 얘기해 주었는데, 이 책문은 천하의 동쪽 변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으니 앞으로의 유람길에 갑자기 뜻이 없어져서 바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온 몸이 화끈해졌다.<sup>50)</sup>

라고 하여서 심상치 않은 책문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고 있다. 박지원의 눈에는 변방 중에서도 변방인 이곳에서도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고 시골티가 없기에, 앞으로의 연행길마저 염려할 정도였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박지원은 자신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성하면서 하인 張福에게 중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지를 질문한다. 장복은 단숨에 중국은 오랑캐의 나라라고 싫다고 대답한다.

이 순간 갑자기 지나가던 맹인 악사를 보고 크게 깨달은 박지원은 평등한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마음자세는 부처의 눈으로 본다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부처의 마음, 평등한 눈으로 다시 살필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장복과 같이 중국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지식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 역시 변방의 선진문물에 기가 질려 버린 태도를 자아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것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평등한 눈, 平等眼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박지원은 책문을 통과하기 위해 주었던 예단을 둘러싼 소동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예단을 더 받기 위해 강요하는 淸人들과 이를 적절하게 거부하려던 마두 사이의 갈등을 실감나게 그렸다. 책문 안에 들어간 박지원은 웅장하고 높고 시원스런 책문 안의 건물에 감탄하며, 술집에 들렀다가,

---

두고 쓴 것이므로 엄밀하게 본다면 책문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50) 『熱河日記』『渡江錄』, 後三庚子, 6월 27일 갑술

그 가게의 배치를 두루 살펴보니, 모두 가지런하고 단정하며 반듯하여, 한 가지의 일도 구차하거나 임시로 해 놓은 법이 없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내버려두거나 어지럽게 놓아둔 모양이 없었다. 비록 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까지도 넓고 반듯하며 규모 있게 놓이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장작더미나 기름 구덩이까지도 모두 그림을 그린 듯 곱고 화려하였다. 아아, 이와 같은 후에야 비로소 利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용이 있는 뒤에야 厚生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후생을 한 뒤에야 그 德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쓰임을 이롭게 하지 않고서도 삶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삶이 이미 스스로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신의 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sup>51)</sup>

라고 하여 그 유명한 '利用厚生論'을 펼친다. 박지원의 이와 같은 관찰은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덕을 끌어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었다.

박지원이 강조한 이용후생의 정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용과 후생을 통해 덕을 바르게 한다는 논의에 대해 공자나 맹자의 논의와 연결시켜서 부(富, 경제력)나 강(強, 군사력)보다는 신(信,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 사대부들에게 통렬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52)</sup> 그러나 박지원이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중국의 첫째 가는 壯觀이 '瓦礫'과 '糞壤', 즉 깨어진 기왓조각이나 부스러진 자갈, 가축의 분뇨를 잘 활용함에 있음을 주장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번영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신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53)</sup> 왜냐하면 박지원은 중국의 제일 장관이 무엇인지를 논하면서 義理의 관점

51) 위와 같음

52)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131~135쪽.

53) 이용후생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金明昊,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 비평사, 1990, 147~148쪽



에서 보는 上士나, 三代나 이후 국가들의 업적도 계승하여 청나라가 이용, 후생, 정덕까지 실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中士보다도 작은 사물에서 중국의 현재를 설명하였던 下士를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sup>54)</sup>

그러나 박지원의 이용후생에 관한 논의조차도 당시 책문이 번성한 것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박지원은 당시 무역의 관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韓이나 林 같은 장사꾼들은 해마다 연경에 드나들어서 연경을 제 집 뜰 처럼 여기며, 저쪽 장수들과 서로 뜻이 맞아서 물건 값이 오르내리는 것이 모두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물건 값이 날로 오르는 것은 실로 이들 때문인데도, 온 나라에서 도대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역관만 나무란다.

역관도 이들 의주상인에게 권리를 빼앗기고는 어쩔 도리가 없을 뿐이다. 다른 곳 장사꾼들도 이것이 의주 장사꾼 놈들의 농락인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화를 내기는 하나 무어라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요즘 의주 장사꾼들이 잠깐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시 흥정하는 잔피의 하나다.<sup>55)</sup>

이러한 박지원의 설명은 현상적으로는 당시 역관조차도 의주상인인 灣商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상의 성장은 18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책문후시의 허용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이제는 그 주도층이 의주상인이 된 것뿐이었다. 역관이나 관에서 무역을 감당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던 것이다.

중간에 청과의 교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청측의 운수청부업자였던 攔

54) 『熱河日記』『駙迅隨筆』, 7월 15일 신묘

55) 『熱河日記』『渡江錄』, 後三庚子, 6월 27일 갑술

頭배가 해체되고, 책문에서의 무역이 금지되는 등 진통을 겪으며 한때 사상들의 교역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책문에서의 교역은 금지된 지 30년 만인 1754년(영조30)에 재개되어 의주상인의 책문무역에서의 주도권은 다시 확인되었다.<sup>56)</sup> 따라서 박지원이 본 의주상인은 흥정하는 잔꾀를 부리는 장사꾼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은 책문의 번성과 조선상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를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책문의 새로움을 다른 방면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책문은 연행사들에게 처음으로 접하는 청나라와의 실질적인 국경의 역할을 하였다. 압록강을 건넌 이후 아무도 접할 수 없다가 책문의 문을 들어오며 청나라의 사람과 문물을 체험한 것은 연행사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18세기에 조선을 이끌던 성리학과 그에 기반한 문화에서 한계를 느끼던 지식인들은 책문에서부터 청나라의 實情과 그를 이끌던 정신이나 문화가 무엇인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다만 책문의 번성함과 발달은 18세기에 더욱 활발해진 조선과 청과의 교역에서 근원한 것이었다. 책문에서의 후시와 이를 주도하였던 의주상인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책문의 번영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인식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선과는 다른 변방의 도시 책문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면서 연행사의 발길은 청과의 경계를 한 단계 허물며 전진하였던 것이다.

---

56) 책문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유승주·이철성, 2002 위의 책, 2장 참조.

#### IV. 山海關

책문을 지난 후에 연행사의 발길은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심장부를 향해 가게 된다. 이들이 지났던 곳은 이른바 遼東이었고, 특히 한때 청의 수도로 삼았던 심양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최덕중에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가는 길을 站으로 표시하면서 봉성에서 심양까지는 8참, 심양에서 산해관까지는 13참, 산해관에서 북경까지는 9참으로 잡았다. 즉 심양에서 산해관까지는 약 13일이 걸렸던 것이다.<sup>57)</sup> 연행사들은 이와 같이 압록강을 지나 심양에 이르는 구간에 이어 산해관까지를 또 하나의 구간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북경까지가 다른 구간이 되었다.

그런데 심양을 포함하여 산해관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각별하게 구별되는 의미가 있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은 萬里長城의 關門이라는 점에서 만리장성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의 의미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만리장성은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시황제가 증축하면서 쌓은 산성이며, 명나라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던 터였다.<sup>58)</sup> 만리장성의 안쪽은 곧 중국으로 만리장성 밖의 지역과 엄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된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압록강을 경계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던 책문을 지났던 연행사들이었지만 산해관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중국과 중국 이외, 즉 전통적으로는 華와 夷를 구분하는 경계였던 것이다. 이것을 굳이 이름한다면 문화적 경계라고도 할 수

57) 『燕行錄日記』 임진(1712) 12월 8일

58) 만리장성의 보수는 사실 명나라 때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청나라 때에는 그다지 수리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리장성의 밖인, 즉 산해관 동쪽이 청나라의 발상지였기에 방어의 필요가 없었던 것 때문이다.

있다.

역대의 연행 기록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선조 때에 중국으로 사신을 가는 朴東亮(1569~1635)을 전송하며 최립은 “공은 앞으로 鴨綠江을 건너 서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遼東과 廣寧 땅을 두루 거쳐 山海關에 이르고, 다시 畿輔 지방을 뚫고 지나가 京師에 이르게 될 것이다.”<sup>59)</sup>라고 하여 압록강을 지나 요동과 광녕을 거쳐 산해관에 이르고, 이곳을 지나면 기보를 지나 북경에 도착한다고 하여 산해관이 가장 결절이 되는 지점임을 말하고 있다. 다른 기록에서도 대개 요동은 산해관과 묶어서 한 지역으로 이해하였다.<sup>60)</sup> 18세기의 박지원의 경우 산해관을 지나서 북경까지 이르는 길의 여정과 이야기를 묶어서 「關內程史」라고 이름하였다.

더구나 요동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역은 이른바 요동벌의 평야지대이며 한번 달리면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래서 煙臺나 哨所의 군사시설이 명나라 때부터 설치되었던 것이다.<sup>61)</sup> 명나라 때에는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遼陽·瀋陽·廣寧·寧遠·山海關을 요충지로 삼아 성을 수선하고, 군사를 조련시켰으며, 특히 猛將을 파견하여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sup>62)</sup> 명·청 교체기에 이 지역에서 많은 전투가 일어났고, 청나라도 산해관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59) 『簡易集』 권3, 「序」,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

60) 앞의 책, 권3, 「序」, 〈送柳西垞赴京師序冬至兼陳奏使〉 “우선 중국의 지역으로 말하면, 遼東에서 山海關에 이르고, 다시 산해관에서 畿輔에 이르렀다가, 기보에서 京師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보게 되는 大野와 長城과 山海와 津途의 形勝은 물론이요, 宮廟와 朝市의 존엄하면서도 壯麗한 모습 같은 것은 공이 이미 실컷 보고 왔을 것이다.”

61) 『朝天記』中, 갑술(1574) 7월 18일

62) 『靑莊館全書』「入燕記」下 정조 2년 윤6월 기사 참조.

산해관의 중요성은 군사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었다. 사신을 갔던 이들에게 산해관은 중국과 중국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의식주 등의 생활문화에 관해서도 산해관은 경계의 기준이 되었다. 산해관 내의 사람들은 ‘얼굴빛이 희고 토실토실하여 잘 생긴 사람이 많아서 산해관 밖과 비교할 수 없었으며, 여자들도 의복이 다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산해관 밖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sup>63)</sup>이라고 하여서 얼굴 빛과 의복에서 넉넉함을 엿보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양식에 대해서도 ‘鳳城에서 周流河까지는 초가가 대부분 많고, 주류하에서 山海關까지는 모두 土屋인데, 간혹 기와집이 있고 초가는 전혀 볼 수 없다.’<sup>64)</sup>라거나 ‘책문 안쪽에서부터 高麗叢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몇집이고, 요동 이후는 몇집과 기와집이 반반이며, 閩陽驛에서 山海關까지는 흔히 들보 없는 흙집들이다.’<sup>65)</sup>이라고 하여 산해관이 주거의 양식에서도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산해관 안쪽은)밥 짓는 쌀이 모두 밭벼의 묵은 쌀인데, 논이 없어 모두 밭에다 심은 것이기 때문에 끈기가 없고 뻗뻗해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산해관 밖에서는 모두 좁쌀과 옥수수로 밥을 짓는다.’<sup>66)</sup>고 하여 주식의 재료에서도 산해관 안팎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산해관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웅장한 성이었다. 연행사들의 노정에서 성은 매우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었다. 성의 규모도 건축물로서 대단하거나와 군사시설물로서 방어의 역할을 하는 성은 관찰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연행길에서 조선의 성과는 달리 벽돌로 쌓은 청의 성에

63) 『戊午燕行錄』 권2, 무오(1798) 12월 12일

64) 『蔚山紀程』 권5, 附錄〈宮室〉

65) 『燕轅直指』 권6, 「留館別錄, 〈公私第宅〉

66) 『燕轅直指』 권6, 「留館別錄, 〈飲食〉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다. 특히 산해관은 북경성과 함께 가장 웅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더구나 요동지역은 명칭의 교체 이후로는 장기간의 평화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성이 있었던 곳도 허물어져서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다.<sup>67)</sup> 벽돌로 만든 성의 편리함으로 인해 이미 17세기의 연행사였던 閔鼎重(1628~1692)의 경우에도 산해관의 성을 보고 견본으로 삼아 서울로 돌아와 벽돌 1천장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모방과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68)</sup>

18세기의 연행사들에게 산해관은 매우 변화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18세기 초에 이곳을 방문한 김창업은 성안의 市肆가 심양보다 번성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18세기 중반의 홍대용은 시사의 번성함을 비교하면서 북경이 가장 번성하고, 심양과 통주, 다음으로 산해관을 꼽고 있어서 심양보다는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이압과 박지원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이압은 '산해관의 둘레와 길이·너비는 瀋陽보다 큰 것 같으나 거리와 상점이 풍성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舊遼東(요양)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박지원은 거리와 시장이 심양보다 더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본다면 대체로 연행사들에게 산해관은 심양과 비슷하게 혹은 좀 더 변화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해관에 관한 기록은 앞서 책문이나 심양에 비해 거리의 모습에 대한 묘사보다는 산해관의 성을 중심으로 산재된 몇 가지 유적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은 姜女廟, 將臺, 望海亭이었다. 강녀묘는 연행길에서 산해관에 가기 전에 있던 유적으로 진나라때 만리장성을 쌓으러 부역을 나왔다가 죽은 남편을 찾으러 온 孟姜과 관련된 곳이다. 맹강이 그

67) 『薊山紀程』 권5, 附錄〈城關〉

68) 『寒水齋先生文集』 권8, 「書」〈答洪士能致中〉

남편인 范七郎을 찾아 왔지만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유골을 지고 지나다가 쉰 곳에 사당을 세우고 塑像을 만든 것이다.<sup>69)</sup>

김창업은 강녀묘의 좌우 기둥에 새겨진, 송나라 文天祥의 시에 주목하여 이를 적어두었다.

진시황은 지금 어디 있느냐?  
 헛되이 만리장성을 쌓아 원망을 만들었네  
 강녀는 죽은 것이 아니니  
 아직도 돌조각에 꽃다움을 전하네  
 秦皇安在哉  
 虛勞萬里築怨  
 姜女未亡也  
 尙留片石流芳<sup>70)</sup>

문천상은 이미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방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성을 짓는 데에 든 백성들의 노고로 인해 원망을 사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만리장성보다 강녀의 지조가 더욱 오래감을 노래하였다. 문천상의 시에 대해서는 홍대용도 주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진시황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어서까지 착한 사적에 머물지 못하였고, 부질없이 원망을 쌓아서 한낱 여자에 불과한 강씨의 정절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대비한 것으로 보았다.<sup>71)</sup>

박지원의 경우에는 문천상을 인용하여 진시황과 강녀의 정절에 대비

69) 강녀묘에 관한 전설은 세부적인 이야기에는 약간씩 다른 점이 있다. 김창업은 맹강이 이곳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울다가 죽었다고 하였고, 이압은 맹강이 남편의 유골을 거두어 바다에 들어가 따라 죽으려고 유골을 지고 이곳을 지나다가 쉬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박지원은 맹강이 남편의 생사 여부를 탐문하다가 여기에서 쉬며 장성을 바라보며 울다가 이로 말미암아 돌로 변했다고 전한다.

70) 『老稼齋燕行日記』 권1, 임진 12월 18일(정묘)

71) 홍대용 저, 김태준 역, 앞의 책, 돌베개, 2001, 60~62쪽 인용.

한 이전에 비해 한 걸음 더 나간다. 박지원은 〈姜女廟記〉에서 강녀에 관한 전설을 소개하면서도 그에 관련된 말 가운데 기록이 다르고 허황하고 거짓된 말이 많음을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또

廟에는 塑像을 세우고 좌우에 童男·童女를 늘어 세웠다. 황제가 여기에 行宮을 두었는데, 지난해 심양에 거동할 때, 지나는 행궁마다 모두 중수하였으므로 금빛과 푸른빛의 단청이 화려하게 빛났다. 묘에는 文文山<sup>72)</sup>이 쓴 柱聯이 있고, 望夫石에는 황제가 지은 詩를 새겼으며, 바위 옆에는 振衣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唐나라 王建<sup>73)</sup>의 ‘望夫石’이라는 詩는 이 바위를 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地志》에는 망부석이 하나는 武昌에 있고, 또 하나는 太平에 있다고 하였는데, 왕건이 읊은 망부석이 그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秦나라 때에는 아직 陝이라고 부른 지명이 없고, ‘姜’도 제나라 여자(齊女)를 부르는 것이니, 허씨를 섬서 동관 사람이라고 한 것은 더욱 사실이 아니다. 행궁 섬돌에서 강녀묘에 이르기까지 돌난간을 둘렀고, 아름다운 향기가 요동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뜻의 ‘芳流遼海’가 붙었는데 지금 황제의 글씨이다.<sup>74)</sup>

라고 하여서 현재의 강녀묘는 청의 황제에 의해 치장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강녀에 대해 〈강녀묘기〉의 말미에 진나라에 ‘陝’이라는 지명도 없고 ‘姜’이라는 이름도 진나라에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전설의 실체에 근본적인 부정을 하였다. 이에 대비해서 청 황제가 오히려 강녀묘에 적극적으로 글씨를 쓰고, 화려하게 단청을 한 것은 결국 만리장성을 비판하면서도 강녀의 정절을 적절히 활용한 청조의 노회한 전략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였다.<sup>75)</sup>

72) 文文山은 송나라 말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시인이자 충신인 文天祥을 말한다. 문산은 그의 호이다. 그는 송나라(남송)가 원나라에 항복하자 저항하다 체포되었고, 쿠빌라이 칸이 그의 재능을 아껴 몽고에 전향을 권유하였지만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다.

73) 王建은 당나라의 詩人으로서, 특히 宮詞로 유명하였다.

74) 『熱河日記』 『駙迅隨筆』 後三庚子, 7월 〈姜女廟記〉

75) 강녀묘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정훈식, 「北學派의 山海關 인식과 글쓰기 양상 :



산해관과 연결된 望海亭 역시 만리장성의 일부로서 주목되었다. 망해정은 산해관의 동문과 남문 사이로 성을 쌓아 바다까지 연속시켜서 성이 끝나는 곳에 세운 정자이다. 이 정자는 觀海亭 또는 澄海樓라고도 하였다. 이 정자는 쇠를 녹여서 바다 위에 부어서 터를 만들고 그 위에다 성을 쌓아 그 위에 만든 것으로 만리장성이 육지끝까지, 그리고 이어서 바다까지 구분하는 의미가 있었다.<sup>76)</sup>

망해정에 오른 김창업은,

6~7리를 가니, 망해정이 반쯤 허공에 걸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시 몇 리를 더 가서 한 성문으로 들어가 작은 거리를 통과하여 수십 층의 돌계단을 오르니 그 위에 정자가 있다. 장성의 가장 끝자리였다. 누각 아래에는 큰 파도가 칠썩이고, 남쪽을 보니 바다와 하늘이 맞붙었는데 한 점의 섬도 없다. 여기가 바로 渤海이다. 북쪽은 산봉이 겹겹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밖은 큰 사막으로 그 아득하고 기괴하며 웅장함은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嶺東에 있는 정자에서 보는 경치 가운데 叢石亭, 洛山寺 같은 경우도 이곳처럼 視野가 활짝 트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는 듯한 기상은 없다.<sup>77)</sup>

라고 하여서 망해정에서의 탁 트인 시야와 기상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현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홍대용 역시 “만일 이곳에 이르러 이런 장관을 (구경하지) 못하면 조그만 지방의 구구한 공명이 어찌 장부의 흉금을 헤침이 있으리오.”<sup>78)</sup>라고 하여서 망해정에서 渤海를 바라보는 장부의 기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록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일망정 만리

홍대용과 박지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지』 39, 문창어문학회, 2002, 121~122쪽 참조

76) 『燕轅直指』 권2, 「出江錄, 12월 10일 〈望海亭記〉

77) 『老稼齋燕行日記』 권1, 임진 12월 18일(정묘)

78) 소제영 외 주해, 1997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34쪽.

장성으로 연결되어 중화와 이적을 갈랐던 곳에서 김창업이나 홍대용은 더 이상 화이를 논하지 않고 장부의 기상만을 논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유적인 장대는 산해관에서 1리 쯤 떨어진 곳에 있던 곳으로 威遠臺, 또는 사방이 네모반듯하여 四方臺라고도 하였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吳三桂가 쌓아서 吳王臺라고도 하였다. 높이가 10여 길이나 되며 주위가 수백 보인 이 성은 성가퀴 아래 큰 구덩이가 있어 많은 병사들이 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었으며, 지하도를 만들어 산해관과 연결되었다고 한다.<sup>79)</sup>

홍대용은,

문을 나와 북쪽으로 수리를 행하여 將臺에 이르렀다. 전하여 이르는데, 오랑캐가 산해관을 칠 때에 하루 만에 이 대를 무어(쌓아) 성 안을 굽어보게 하였다 한다. 이름은 비록 장대이나 실은 작은 성이었다. (중략) 그 위에 오르니 과연 성 안의 대강이 바라보이고, 사면으로 굽어보니 웅장한 제도와 峻節한 형세가 실로 상상에 미칠 곳이 아니었다. 만일 사람과 양식이 있으면 비록 천만 군사가 있어도 범할 길이 없을 것이다.<sup>80)</sup>

라고 하여서 이 장대를 오랑캐가 쌓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비해 박지원은 <장대기>에서 이 장대에 대해 역관들이 한나라 때에 쌓았다는 하는 말을 부정한다. 그리고는 오삼계가 이 장대를 근거지로 하여 산해관을 지킨 위용에 대해서만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이미 박지원은 장대의 위용에 대해 서두에서 장대를 보아야만 장수의 위엄을 알 수 있다고 단언할 정도로 장대를 높이 평가하였다.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서는 중국이 크다는 것을 모를 것이며, 산해관을 보지 못하고는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할 것이고, 산해관 밖의 將臺를 보지

79) 『燕轅直指』 권2, 「出江錄」, 12월 10일 <將臺記>

80) 홍대용 저·김태준 역, 앞의 책, 돌베개, 2001, 62쪽.

않고는 장수의 위엄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산해관에 1리쯤 못 미쳐서 동향으로 네모난 성 하나가 있다. 높이가 십여 길, 둘레는 수백 보이고, 한 면에 모두 7개의 城堞이 있었으며, 첩 밑에는 흙(圭)과 같은 구멍이 있어서 수십 명이 숨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구멍이 스물 네 개다. 성 아래로 역시 구멍 네 개를 뚫어서 병장기를 보관하고, 그 밑으로 굴 [隧道] 을 파서 장성의 안쪽과 서로 통하게 하였다. 역관들은 모두 漢이 쌓은 것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吳王臺'라고도 한다. 吳三桂가 산해관을 지킬 때에 이 굴 속으로 행군하여 갑자기 이 대에 올라 포를 쏘라고 하면, 산해관 안에 있던 수만 명이 일시에 고함을 질러서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해관 밖의 여러 墩臺<sup>81)</sup>를 지키던 병사들도 모두 이에 호응하여 몇 시간에 호령이 천 리에 퍼졌다고 한다.<sup>82)</sup>

이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본다면 장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삼계와 연결되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홍대용의 경우에 나중에 귀국하는 길에 이곳을 다시 지나며, 孫進士와 대화하며, 장대를 명나라 때에 쌓았고, 오삼계가 관련됨을 알았고, 이 장대를 보수하지 않는 것이 결국 산해관 바깥도 이제는 청나라의 本家로서 영역이니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sup>83)</sup> 홍대용에게 산해관은 더 이상 華夷를 나누는 경계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청의 등장 이후에 분명해진 사실이었고, 산해관을 지나면서 홍대용은 이를 확인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박지원 역시 장대가 명·청의 교체를 확인하는 곳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오삼계에 대한 여론에서 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들이, 오삼계가 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에 비

81) 墩臺는 주변 관측이 용이하도록 평지보다 높은 평평한 땅에 설치한 소규모 군사 기지를 말한다.

82) 『熱河日記』『駙迅隨筆』後三庚子, 7월 〈將臺記〉

83) 『澁軒書外集』권8 「燕記」〈孫進士〉

관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장대에서 장수의 위엄을 확인하는 것은 색다른 관점이었다. 더구나 장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서 장대의 위치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또 박지원은 장대에 오르내림에 대해 관직 생활에서 지위의 오르내림에 비유하여 보편적인 인생론을 제기하였다. 오를 때는 오르는 것만 생각하였다가 내려올 때가 되어서야 위험한 곳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장대에 대한 논의 역시 화와 이를 가르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화이에 대한 고민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고민을 화두로 삼았던 박지원의 태도를 읽게 해 준다.

그랬기에 박지원은 산해관에 대해

봉성에서부터 천여 리 사이에 堡, 屯, 所, 驛이라 하여 나날이 몇 곳씩 성을 보아 왔지만, 이제 장성을 보고 나니 그 시설이나 건축이 모두 이 산해관을 모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산해관에 비교하면 어린 손자뻘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蒙括이 장성을 쌓아서 오랑캐를 막으려 하였지만 진나라를 망하게 한 오랑캐는 오히려 집안에서 자라났으며,<sup>84)</sup> 서중산이 이 산해관을 쌓아 오랑캐를 막고자 하였으나 오삼계는 관문을 열고서 적을 맞아들이기에 급급하였다. 천하에 일이 없어진 지금, 부질없이 지나는 상인과 나그네들에게 세금이나 받는다는 비웃음을 사게 되었으니, 난들 이 관문에 대하여 다시 무어라고 말할 것이 있겠는가.<sup>85)</sup>

라고 하여 산해관이 장성의 원조가 될 정도로 시설이나 건축이 뛰어나 방어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된 지금에는 세금이나 받는다는 비웃음이나 사고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산해관은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화와 이를 가르는 상징적인 공간이었

84)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은 진시황의 아들인 胡亥를 말한다.

85) 『熱河日記』『駟迅隨筆』, 後三庚子, 7월 〈山海關記〉

다. 산해관 밖은 이적의 땅이고 산해관 안쪽은 중화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서 입관하면서 이러한 구분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적이었던 만주족이 중화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굳이 산해관이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일 수는 없었다.

산해관을 방문한 조선의 연행사들은 더 이상 關防의 기능을 할 수 없고, 화이의 기준도 되지 못한 이곳에서 무너진 화이관을 확인하고 청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강너묘를 치장한 청조는 만리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고, 바다까지 이어진 만리장성의 끝, 망해정에서 화이가 아니라 장부의 기상을 논하였다. 또 명청의 교체를 상징하였던 위원대 역시 장수의 위엄과 벼슬살이의 험난함을 연상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산해관에서 화이를 논하던 전통적인 화이관이 이제 18세기의 연행사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 V. 맺음말

조선후기에 청나라로 갔던 연행길은 대개 비슷한 행로로 이어졌다. 압록강을 건너서 책문에 들어간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였다. 이러한 연행길을 가면서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선과 청 사이에 있었던 경계를 하나씩 건너게 되었다.

조선과 청 사이에 놓였던 국경은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조선과 청이 나뉘어지는 것은 굳이 정계비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인정되는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곧 청의 실체와 전면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인 국경의 역할, 국경검문소의 역할은 책문에서 수행하였으며, 전통적인 화이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산해관이 또 하나의 결절점이었다.

이들 압록강, 책문, 산해관은 각각 자연 지리적인 경계, 실질적인 국경의 경계, 문화적인 경계로 연행사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들 지점들을 통과한 연행사들을 18세기를 중심으로 전후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며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가는 소회는 시기에 따른 변화의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압록강을 건너는 감상에 젖어 때로 술로 그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다만 18세기의 홍대용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는 일이 여행길의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박지원의 경우는 강으로 상징되는 자연물과 이별이라는 감상,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경계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성찰하고, 그 관계를 뛰어넘어 사고하려는 철학적인 태도까지 보이게 되기도 한다.

책문의 경우에는 국경의 검문소로서 실질적인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 책문에서 비로소 청나라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압록강을 넘어 책문까지는 청의 발상지로 인한 봉금지대로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책문의 통과 절차는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사항이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처음 접하게 된 책문 안 거리와 상점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특히 18세기의 책문은 책문후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상들의 활약으로 조선과 청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번성함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비록 연행사들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책문을 지나며 변경의 경계는 더욱 확대되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중화와 이적이 갈렸던 분기에 해당하는 산해관을 지나며, 연행사들은 다시 한번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18세기 이전에는 산해관은 의식주에서 중화와 이적으로 모든 문화를 가르는 경계로 인식되었다. 18세기 이후에도 그런 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관

방의 기능, 방어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산해관에서 연행사들은 이제 화이관이 무의미해진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8세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문화적 경계로서의 산해관은 사라지고 청의 현실을 확인하고, 장수의 기상과 보편적인 삶의 어려움을 논하는 장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여러 경계를 지나면서 18세기의 연행사들은 새로운 세계를 한발씩 받아들이는 여정을 지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 【 참고문헌 】

- 金景善, 『燕轅直持』
-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 南九萬, 『藥泉集』
- 閔鼎重, 『寒水齋先生文集』
- 朴思浩, 『心田稿』
- 朴趾源, 『熱河日記』
- 徐居正, 『四佳集』
- 徐慶淳, 『夢經堂日史』
- 徐有聞, 『戊午燕行錄』
- 李德懋, 『靑莊館全書』
- 李押, 『燕行記事』
- 李裕元, 『林下筆記』
-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 麟坪大君, 『燕途紀行』
- 丁若鏞, 『茶山詩文集』
- 崔德中, 『燕行錄』

- 崔笠, 『簡易集』  
許筠, 『荷谷先生朝天記』  
洪大容, 『湛軒書外集』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저자미상, 『薊山紀程』  
저자미상, 『往還日記』  
『關西清北全圖』  
『輿地圖書』  
『通文館志』  
『海東地圖』  
홍대용 저·김태준 역,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 金明昊,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 비평사, 1990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여행길을 가다』, 푸른 역사, 2005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소재영 외 주해, 1997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탐색, 鳳凰山城 -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 『정신문화연구』 29-2, 2006  
이철성, 「조선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3호, 2009  
李花子, 「17·18세기 越境문제를 둘러싼 韓淸交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정해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 명청사학회, 2006.  
정훈식, 「北學派의 山海關 인식과 글쓰기 양상 : 홍대용과 박지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지』 39, 문장어문학회, 2002



## 燕行使所体验的朝鲜和清之间的三个分界地

鄭在薰

朝鲜后期通过入清的燕行使团开展了许多文化交流活动，当时基本上是具有较高官职的知识人担任使团中的三使，他们作为燕行使，到当时具有先进文化的清朝，除此之外，一些子弟军官或打角等随员也有不少参与其中。

与现在的条件不同，当时的旅行非常不便，需要花费较长的时间。燕行是对新世界和文化的体验，从这个意义上看，参与旅行的人们具有非常独特的体验。本文以记述燕行使节亲身经历的燕行录为资料基础，考察参与燕行的人们是如何区分中国和朝鲜的。

朝鲜后期入清的燕行路线大体相同，渡过鸭绿江入栅门后便循清朝规定的路线，所以参与燕行的人们每次都要经过朝鲜和清的分界地。

朝鲜和清的国境分明。以鸭绿江、而非以定界碑作为朝鲜和清之间的国境界已是公认的事实。但是对于参与燕行的人们来说，渡过鸭绿江并没有马上完全进入清的实际地区。所设立的栅门才是实质性的国境界，具有入境检查所的作用。而与传统华夷之分有关的山海关则是另外一个结节点。

鸭绿江、栅门和山海关分别是燕行使所认为的两国自然地理、实际国境以及文化的分界地。观察18世纪前后通过这些地点的燕行使的记录，能知道出现有几种变化。渡过鸭绿江是离开故国前往他国，这种感怀不同时期没有什么差异，有时是以酒来慰藉过江的情怀。只有18世纪洪大容把过国境前往中国明确看作是经过了燕行路的冷风而面向新世界的路。朴趾源的境遇是把江作为具有离别象征意义的自然物，通过国境时他思考到与“道”相关的内容，如此将之上升到哲学的态度。

栅门作为入境的检查地具有实际分界地的作用。在栅门才与清接触，这是因为自鸭绿江到栅门的地区作为清的发祥地成为封禁地带而禁止通行。通过栅门的手续因为是参与燕行的人们非常关注的事项，所以相关记录非常详细。况且栅门是和清相接触的第一站，其内街道和商店的样式带来了新的冲击。尤其是18世纪栅门后市发展，私商活跃，朝鲜和清的交易量有很大的增长，这是其繁盛的原因。虽然燕行使对此种情况不甚了解，但是当他们经过栅门，这种现象加强了他们对此地为边境分界地的认识。

山海关在传统的华夷观中是中华和夷狄的分界地，经过山海关时，燕行使对现实再次有新的

认识。18世纪之前认为山海关是包括衣食住等文化在内的中华和夷狄之间的分界地，18世纪以后这种认识虽然没有完全改变，但是因为没有关防的功能，在不需要防御的山海关中，燕行使的这种华夷观就无意义可言。18世纪这种现象十分突出，山海关作为文化的分界线消失的同时，清的现实得到确认，这里具有将帅的气象，也是思考人生意义的场所。

就这样在经由清和朝鲜之间这几个分界地的过程中，18世纪的燕行使持续着不断认识新世界的旅程。

关键词

燕行使, 鴨綠江, 刪門, 山海關

▪ 논문투고일 : 2013.1.21.    심사완료일 : 2013.2.7.    게재결정일 : 2013.2.13.